朝鮮日報
第二夕刊
一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米内首相의議會演說

東亞新秩序建設은 物資問題解決이要諦

國民의切實한協力要望

【東京電話同盟】一日議會에서 米內首相의 施政演說內容은 如左하다

이번意外에 大命을 拜하여 實로 恐懼하는바이다 未曾有의 時局에對하여 渾身의努力으로써 國政에理의 重責을다하고저한다

이에 第七十五回帝國議會에 臨하여 政府의所信을 披瀝할 機會를 어덧음은 余의光榮으로여기는바이다 惶恐하옵게도 天皇陛下께옵서는 今期議會의 開院式에當하사 特히 優渥하온 勅語를 賜하옵시어實로感激하여마지안는바이다 余는 諸君과함께 삼가聖旨를 奉體하여 一意赤誠을다하여 宸襟을 奉安하려하는바이다

이때를當하여 國體觀念을明徵하고 我國의 精神을 昂揚하여 國民的自覺을 굿께함이 必要하다고밋는다 鞏固한國體觀念이 諸般方策의根底이다 이것을 明徵할것은 贅言을 要치안는바 特히 紀元二千六百年에 際會하여 重大時局에 當面하여 一層그感이 切實하다 回顧하건데 支那事變勃發 以來 벌써 二年有半을 經過한바 各地에 奮戰하여 빗나는戰果를거둔 皇軍將士의 勞苦에對하여는 衷心으로 感謝하는同時에 護國의英靈에對하여는 기피 哀悼의意를 表하는바이다 또이들前線將兵에 後顧의憂慮를 주지안키爲한銃後國民의不絶한熱誠과 努力에對하여도 感謝하여 마지안는바이다 支那事變處理에關하여 이미決定된 帝國의根本方針은 確固不動의것이다 政府는 이根本方針에則하여 鞏固한決意下에內外의諸情勢를考慮하고 手段을다하여 積極的努力을傾注, 斷乎히時局의解決을 期하고잇는바이다

일즉 事變의進展에따라 和平救國의氣運이 支那各方面에일어나서 이제汪精衛氏를中心한新中央政府의樹立이 近迫하고 잇다 帝國으로서는 이新中央政府가 順調로 成立되기 위하여 全幅的 支持와 協力을 不惜하는바이다 그리고 또 도리켜 現下 國際情勢를 살피건대 昨年九月 歐洲戰爭勃發 以來 世界列國의 關係는 極히 複雜하여 그歸趨는 容易히 豫斷을 不許하는바가잇다 此間에處하여 帝國은 이에 介入치안코 專히支那事變解決에 邁進할方針을 闡明하엿는데 이方針은今後도 堅持할생각이다 諸列國과의 關係에關하여는 帝國은毅然히自主的立場에서 서서 國交調整을 꾀할생각이다 또歐洲戰亂에따라 일어나는事件에 對하여는 以上의方針下에 對處하려한다 東亞新秩序建設의使命을 達함에는 內로는國家의總力을充實하여 國防力의强化를 期하는것이 極히緊急한要務이다 그리하여國防力强化를爲한軍備充實, 國民精神昂揚, 經濟力의發展及戰時國民生活의確保는 不可缺한것이라고밋는다 今後國際情勢에對處함에는 軍備의充實을必要로함은勿論이고 또我國民精神은非常時에際하여 特히 忠勇義烈한精神은 銃後에잇서서도益益昂揚하고 國力의充實發揮에 遺漏업기를 期하지안흐면안될것이라고생각한다 敬神崇祖의思想을涵養하고 國民敎育을刷新하여 國民體力의向上을 圖謀함은 이要務에應하고 根基를굿게하는것으로 政府는 極力그達成을 期하고잇는바이다 經濟力의 發展을圖謀함에는 生産力의擴充과 貿易의振興에 努力하여 이미日滿支를通하는 經濟統合計畫의 實施를促進하여서 低物價政策下에 諸般方策을 講究하여써 物資의增産과 配給의適正을 期한다 現下 戰時經濟運營의 要諦이다 이目的을 達成함에는 事國一致, 一層의努力을必要로하는同時에 官民協力, 諸般의經濟統制를 强化하여 그運營의 圓滑을 꾀하려고생각한다 政府는 戰時國民生活의 確保에 充分한 힘을 다하여 米穀 其他의 重要生活必需品에 關하여는 必要物의 生産을 確保하고 配給을 適正케하여써 供給을 確保하려하는바이다 그러나 이를 關하여 轉占의 大衆은 完遂함에는 平時에잇서서는 참기어려운節約도 不得已하게될것은 當然한일이므로 全國民의戰時意識에徹하여 戰時經濟運營에 遵守하고 그生活을緊縮하는等 이에對應할方策을講究하는不退轉의覺悟로써 此間에處하기를切望하는바이다 昭和十五年度豫算에關하여는政府는前內閣에서 編成한것을踏襲하고 이를議會에提出하여 協贊을仰하기로하엿다 그런데租稅制度에關하여는 長期建設의段階에잇는 現下財政經濟事情에 卽應하기爲하여 그整備確立을主眼으로하여 國稅地方稅의 全般에亘하여 必要한改正을 하기로된바이다 以上陳述한各般方策을 實現하는데對하여는곳 擧國一致, 不拔의信念에基하여 國民의理解와協力에 기대리지안흐면안될것이다 興亞의大事業을 完遂함에는 更히戰時體制를 强化하고 나아가서는 我帝國의 傳統的本領을 發揮하는것이 가장肝要한일이라고밋는바이다 今回提出할 豫算案과 各般의法律案은 卽現下緊急한 要務에應하기爲한것이다 諸君은 政府의뜻의 잇는바를 諒解하여 審議한後 速히協贊을 하여주기를 切望하는바이다 (寫眞은 米內首相)

陸軍과 緊密協力

全海岸線遮斷成功

海軍大臣의戰況報告

【東京電話同盟】支那事變에關하여 前議會以後의 海軍作戰의 概要를說明하겟다 帝國海軍在支作戰部隊는 陸軍部隊와 緊密히 協同하여 占領地水域의 確保安定及 附近敵兵力掃蕩, 沿岸一帶의 交通遮斷或은 奧地連絡要地의 攻擊等 幾多困難한 作戰을 遂行하면서 오로지 所期目的의 達成을 爲하여 勇戰奮鬪를繼續하고잇는데 그戰況을 各方面에노나 說明하던 揚子江方面에서는 再昨年秋 武漢三鎭攻略後 更히進擊을 繼續하여 同年十一月에는 岳州를 占領하고 爾來 거기에서 揚子江口까지約八百浬에亘한 江湖의殘存機雷의 排除 及水路障害物의 淸掃等을 擧行하엿다 자주江岸에 出沒하는殘敵을掃蕩하고 在中支陸軍部隊에對한 補給大動脈을 確保하여 作戰上, 治安維持上 多大한 成果를거두엇다 此揚子江上의作業은 困難하며 또一刻의忽懈를不許하고勞苦가만흔作業이나 我作戰部隊는 그任務를 完全히遂行하고잇다 一方昨年三月의 南昌方面作戰에는 鄱陽湖及贛江에서行動하여九月下旬의 湘江方面의作戰에는 洞庭湖로부터湘江을遡江하여十月上旬江蘇省方面의 掃蕩作戰에는 高郵湖及洪澤湖까지進入, 沿岸地區를 掃蕩하는等恒常 我陸軍部隊와 緊密한協同作戰을하고잇다 다음에海上方面에서는 始終沿岸의 交通遮斷을 續行하는同時에 海陸軍協同作戰下에 다음가튼 各作戰을 實行하엿다 卽二月에는 海南島를攻略하여 南支方面一帶를 制壓하는데 極히重要한 同島를 占據하고 또이와거의가튼時期에 이方面의 海州의 攻略에 際하여 沿岸及潮河水域으로부터 陸軍의協力行動하여 多大한效果를 거두엇다 六月에는 南支那方面에서 汕頭及 附近一帶를 攻略 廣東省東部의 重要補給路를 遮斷하고 이외前後하여 浙江福建廣東各省沿岸의 重要地點인福州, 溫州等十二의 港口를 閉塞하여 東南及南海面으로 부터의 物資輸入路의 封鎖를 緊密케하엿다 更에對하여 安南海路의 上陸作戰을 敢行하여 佛領印度支那로부터 廣西省을 通하여 行하는 物資輸入路及 安南海路의 物資補給路를 遮斷하엿다 이리하여 我海軍은 支那全沿岸卽海岸線 約二千八百浬의 地域에對하여 强大한制壓力을加하게되엇스므로 敵의 海港은 거의업서젓다 그리고航空部隊는 沿岸及戰線附近의 敵兵力軍備施設等을 攻擊하여 偵察의任務에服하여 連續不斷의努力을繼續하여 特히南昌方面의作戰其他大規模의 陸上作戰에 對應協力하여 顯著한戰果를 거두엇다 또奧地에對하여는 長驅하여 重要地點을 襲擊, 重慶政府等首府, 昆明, 蘭州, 西安等各地의敵의 航空兵力及軍事施設에 多大한損害를주엇는데 特히重慶에對하여는 五月부터 八月까지連續十數回의空襲을反復하여 敵軍의 戰意를 挫折시켯다 更히昨年末南寧占領以後는 遠攻戰果를 嚴하여 戰略的으로 龍州方面에서 活動하여 柳州, 桂林, 西南各地에 攻擊을 加하엿다 合計 五十數機의 敵航空機를 擊破하고 또 佛印度支那로부터 昆明에 通하는 滇越鐵道를 爆擊하여 敵의 補給을 遮斷하는等 物資輸送路의 遮斷에 甚大한 效果를 거두엇다 以上은 海軍作戰의 概要인바 이제거의 完全히 敵의海上交通을 遮斷하고 또更히 奧地에 그 作戰의 手를 伸하여 敵의 物資輸入에 對하여서도 그뒤의 重要한 第三國物資輸入路에 對하여도 그要地인 蘭州昆明等을 爆擊하여 補給交通을 敢行하엿스므로 敵의疲弊困憊의度는 甚大함을 생각한다 그러나 事變의前途에는 克服하여야할 幾多의 難關이가로노여잇스므로 海軍은 益益上下一致하여 作戰目的의 達成에 邁進하여 上은大元帥陛下의大御心에 奉應하고 下는 萬民의 期待에 副하려고하는바이다 그리고 이機會에 國民全般의 熱誠잇는 後援에 對하여 海軍將兵을 代表하여 기리 謝禮하는바이다

本格的折衝을開始

難航中의淺間丸事件

【東京電話同盟】크레기英大使는 一日午前十時 四十五分外務省에 谷次官을 訪問하고 淺間丸事件에 對하여 二, 三疑問點을 質問한後 同十一時五分辭去하엿다 一方三十一日 有田, 크레기會談에 臨하여 淺間丸問題의 本格的折衝은 一日午後四時부터 外相官邸에서 開催되기로 되엿는데 有田外相의會出席中으로 谷次官이代身하여 交涉의 衝에 當하여 지난二十七日 크레기大使에依하여 手交된英國政府의 公文에 對하여帝國政府의反駁的回答公文을手交할터이다 그리고 雙方의主張을 明白히하고 三日午後公表되기로될것이다

電力調整令發動과 關西產業界의要望

【大阪電話同盟】關西地方不況會에서는 마침내 來十日부터電力調整令에 基하여 電力의 消費及 供給에 對한 强制的發動을 決定하엿는데 이에 對하여 同界에서도 今日의 事態는 不得已하다는 態度를 表明하엿스나 다만 그實施運營에잇서 다음가튼 諸點을 要望하고잇다

一, 輸出產業에 잇서서는 最近電力의 缺乏으로 事實上 操業短縮을 보고잇는바 電力供給制限은 實際의 事實을 들어보면 一工場에서 需要에 應할 수 없는 事情이 일어나고잇다 (以下)

一, 軍需其他緊急方面에 優先的 配給을 하는데 잇서서는 關西方面의 現狀은 節約의限度에 達하고잇고 더욱이 平和產業에잇서서는 國民生活必需品에對한 最低限을 供給하는 程度에 이르럿스므로 이以上電力을 節約하는것은 社會不安을 惹起할 念慮가잇다

一, 【크렘】이 發生하는이때에 以上 邦品의 信用을 失墜하는 일이 업도록 特殊事情을 考慮할것

第一日의貴院會議

【東京電話同盟】休會後 再開된 第一日의 貴族院本會議는 午前十時七分開會, 米內首相以下 各閣僚大臣列席 ... 有田外相으로부터 外交演說을 마치엇다

大河內正敏子

(質問要旨) 東亞의大建設에 當하여 自國의 經濟力을 强化하는데 뭇지지 말고 東亞全般의 經濟力의 强化에 努力할 것이다 ...

米內首相

經濟政策에 關하여는 國民의 明朗한 生活을 확보하고 ...

藤原商相

低物價政策을 堅持한다 ...

外相、淺間丸事件報告

【東京電話同盟】淺間丸事件에關한 有田外相의 說明은 다음과갓다 (同盟通信係有田外相) 지금 外交演說中에서도 言及하여두엇지만 淺間丸事件에 關한 英國側과의 交涉經過의 槪要를 報告하여 둘려고 생각하는바이다 帝國은 歐洲戰亂勃發以來 交戰國의 中立國商船에 依하여 進行되는 通商에 對하여 過度의 制限妨害를 加하여 이에 關聯하여 中立國船舶의 臨檢停船等의 事件이 到處에 多發하엿다 모두 歐洲에서의 일이엇스나 東洋方面에서는 此種事件이 업섯다 그런데 今回發生한 淺間丸事件은 太平洋上에서 中立國인 米國으로부터 中立國인 帝國의 港口로 向하고잇는 本邦船舶에 對한 交戰國艦艇의 强力行使일뿐아니라 事件의發生地點이 帝國의 近海이엇던것等에 鑑하여 매우 我國民의 憤激을 사게된것인데 이것은 實로 當然한일이라고 생각하는바이다 政府도 이點을 特히 遺憾으로 생각하여 本事件에 關한 報道를 接受하자 我關係方面으로 하여금 事件의 眞相을 糾明시키는 同時에 本事件의 善後措置에 關하여 協議한 結果 一月二十二日夜 크레기英大使를 外務省으로 招致하여 余가 不得已한 事情이 잇다고하여 (以下略)

政府提出의議案

【東京電話同盟】休會後 再開議會에 貴衆兩院 事務局은 暫時 開院式前 政府提出法律案에 對하여 協議하고 있는데 衆議院議事課에는 임의 三十七件이 提出되엇고 政府委員會 等으로 會議에 附議가 된다 이 政府提出의 法律案은 다음과 같다

一, 鑛業法中改正法律案
一, 砂鑛法中改正法律案
一, 損害保險再保險法案
一, 同特別會計法案
一, 輸出毛織物取締法案
一, 有機合成化學工業法案
一, 商工組合中央金庫法中改正法案
一, 輸出資金及輸出品製造資金前貸損失補償法案
一, 物品販賣業許可制에關한法律案
一, 石炭共販會社에關한法律案
一, 商業組合法中改正法律案

院內臨時閣議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一日午前九時四十分부터 院內大臣室에서 米內首相以下各閣僚出席下 院內에서 臨時閣議를 열고 議會의 答辯對策其他에 關하여 協議한 後 同十時閣議를 마치고 首相以下各閣僚는 貴族院本會議에 臨하엿다

英首相遺憾表明

淺間丸事件政治的解決示唆

【倫敦卅一日發同盟】英國政府는 淺間丸事件으로 日英友好關係를 그르치는것이라하여 그迅速한解決을 바라고잇는데 체임벌린首相은 三十一日午後二時 議會에서 이에對하여 遺憾의意를 表明하고 從來法律問題만에 始終하던 回答과 比하여 明確한 政治的解決을 示唆하고 英國政府의 和解態度를 보이는것이라하여 重視된다

英獨의角逐激化

猛烈한羅國石油爭奪戰

【倫敦發電】石油資源의 獲得을 直接動機로하는 最近獨逸의 東南歐進出은 발칸地方을 새로운 不安에 휩쓸려넣고 西部戰線마저 의 關聯에서 『事態는 激化』라는 感을주어 英佛聯合國의 神經을 刺戟하고잇다 발칸 最近의 新事態는 獨逸이 蘇聯과 한께 發波를 不安에 빠트리고 羅馬尼亞를 威脅하여 石油資源을 獲得하고잇는 그것이다 이것은 英佛의 東部 발칸에의 要求를 拒否하고잇는 ... 要求가 目的이라 하여도 이것은 羅國에 對하여 獨逸의 要求를 强要하는 示威及 발칸에 對하여 威脅을 보이려는 軍事的 考慮도 多分이 包含되어잇다고 보지안흘 수업다 獨逸에 對하여 東南歐의 資源이 이 가치 有利하게 展開하게 된것은 蘇聯의 芬蘭戰의 不利에 原因한 것이 만코 獨逸은 이를 利用하여 蘇聯에 對한 要求를 提起하자, 蘇聯도 이것을 許容하지 안흘 수 업게 된 것은 明白한 일이다 그런데 今回의 獨逸行動은 軍事行動보다도 차라리 石油資源獲得을 爲한 것이라는 것이 그 眞目的인데 獨逸이 그 目的을 達成하면 獨逸經濟力의 破壞를 第一目標로 싸우고잇는 英佛에 對하여는 이것은 痛恨事일 것이다

거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羅國의 石油企業에서의 外國資本의 地位인데 企業七十五퍼센트는 英佛, 白, 和, 米의 資本이다 卽 羅國一日의 石油生產高一萬七千噸 그中 約一萬二千噸은 外國會社의 分이다 獨逸에 對한 供給量은 條約에 依하여 一日七千噸인데 羅國이 獨逸에 規定以上의 石油를 供給하려면 어떠케하더라도 外國資本에 依存生產中으로 多量을 拾出하지안흐면 안된다 그러면 外國資本은 大槪英佛陣營에 屬하여 이를 肯定하지안는다 그래서 羅政府는 外國資本에 依한 生產도 一日政府에 賣却하라는 强制的 義務를 規定한 勅令을 내엇다 이것은 明白히 獨逸의 壓迫에 依한 것으로 政府가 이것을 買上한後 獨逸의 條約의 規定以上으로 만히 팔려는 魂膽이다 英佛은 이것은 羅國이 中立의 範圍를 超越하여 獨逸을 援助하는 것이라하고 從來關係로보아 그 不當을 責하고잇다 그러데 이 石油爭奪戰은 西部戰線의 膠着과 表裏를 이룬 것으로 獨逸의 大攻勢에 對한 準備段階로 서 중요시 잇다 이것이 歐洲戰爭의 現段階이라고도 할 수 잇는 것이다

米十三億弗案否決

二個年六億萬弗로落着

【華盛頓三十一日發同盟】下院海軍委員會는 同日 第二海軍擴張法案을 審議하고잇는데 同委員會는 三十一日 海軍委員會는 昨年十三億弗의 原案을 可決하고 會議에서 海軍當局의 强硬한 要求에도 不拘코 드디어 大幅削減하여 二個年間六億五千五百萬弗의 削減修正案을 可決하고 하엿다 米國海軍勢力의 二割五分擴張案은 否決하엿스나 그리고 十三億六千五百萬弗案은 五百萬弗案을 一割增强으로 目標로한것이다

遭難潛水艦 引揚成功

【東京電話同盟】昨年二月二日來 潛水艦에 對하여는 救難作業에 從事中이엇던바 이제야 引揚에 成功하여 一日 海軍省으로부터 左와如히 公表하엿다

二月一日海軍省公表 昨昭和十四年二月二日未明 伊第六十三號 潛水艦은 豐後水道에서 艦隊演習中 不幸히 殉職 沈沒하자 海軍當局은 直에 救難하고 引揚하기로 決定하여 本作業은 吳鎭守府司令長官의 指揮下에 作業隊員을 督勵하여 約一個年의 長期間에 亘하여 非常한 努力으로써 各種困難을 克服하여 마침내 一月二十二日引揚에 成功하엿다 作業隊員은 毅然히 殉職者의 遺骸에 着手하여 同月二十九日 이를 完了하엿다 그리고 全國民의 絶大한 同情에 對하여 어어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이다

006407

親蘇派猛活動

重慶政府最近動向

【香港三十一日發同盟】重慶來電에依하면 重慶政府는 財政部代表 ... 蘇聯方面과의 接近工作을 强化하고잇는데 最近 ... 米國의 對日輸出禁止에對하여 ... 蘇聯의 援助를 ... 重慶政權은 親蘇派가 勢力을 차지하게 되어 ... 對日抗戰을 繼續하려 하고잇다

電力問題로 藤原商相談

【東京電話同盟】藤原商相은 一日 閣議後 다음가치 말하엿다

電力石炭問題는 豫想外에 重大化하게되엇스므로 이에 對하여 萬全을 期하기爲하여 여러가지 研究를 하고잇는데 今日閣議에서 于先 電力調整令을 二月十日에 發動시켜 强制的 電力供給制限을 하기로 되엇다 이것으로써 商工省으로서는 制限된 電力이 確實히 供給될수잇도록 石炭配給을 하지안흐면 안되게 되엇다 나로서는 今日부터 二月十日까지의 出炭狀況과 實績을 잘 調查하여 그 狀況에 따라서는 輸出入 臨時措置에 基한 石炭使用令을 發動시키지안흐면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配給統制令도 發動시키지 안흐면 안될 것이다 이것은 二月卄日以後가 될 것이다 그리고 石炭使用令과 同時에 配給令이 發動되지 안흐면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石炭使用令은 大阪을 비롯하여 九州, 北海道等 全國炭鑛業者가 가지고잇는 石炭을 强權으로 徵發시켜 日發에 賣渡하게하는 것으로 日發의 電力供給을 確保시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石炭增產에 關하여 지금 여러가지 調査를 하고있는데 石炭增產獎勵金의 制度로하면 어떨까하여 目下大藏, 商工兩省에서 折衝中이나 아직 그 獎勵金額制度의 運用等에 對하여는 아직 具體的 決定은 업스나 急을 要하므로 速히 成案을 어드려고 생각한다

辭令

(專賣局辭令三十一日附)
副事務官 今井政次郎
京城地方專賣局滿州出張所長을命함
販賣所長 和氣八郎
依願免本官

人事·集會

▲北村輝雄氏(總督府防護課長) 國境警備視察次 平北地方出張中 三日午前七時二十分 京城驛着歸任豫定
▲金炯元氏(前每日新報編輯局長) 辭任人事次來社
▲李宇英氏(天道敎本部觀寮) 淸津府新岩洞自宅에서 遭外艱喪
▲李根昌氏(司法官試補新義州法院勤務) 新任人事次來社 二日午後四時三十分 京城驛發車로 赴任

八面鋒

◇米內內閣 最初의 議會 今日부터 開幕.

◇冒頭 首相 外相 藏相等의 施政演說이 잇고, 各政黨으로부터 質問戰이 開始.

◇政黨에서 四名이나 閣僚를 너헛스니, 倒閣은 안케지만.

◇多端한 內政, 外交問題를 如何히 處理할가 政府, 政黨間의 防攻戰이 可觀.

◇國民의 協力을 獲得하라, 秘密主義를 打破하라 함은 政黨自의 絶叫.

◇米內內閣의 運命도 民意를 어느만치 尊重하는가에 長短을 決定.

◇獨逸의 外交方針을 轉向, 英佛 가리지안코 닥치는대로 攻擊實手.

◇伊太利도 解氷期와연 軍事行動을 取하리라고,

◇一九四〇年은 그야말로 世界的 大事實이 現出하는 모양이군.

稅務改正 事務協議會

總督府財務局에서는 來七日부터 二日間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各道地方課長各道財務事務擔任者를 招集하여 新年度부터 實施되는 稅制改正에 關한 事務協議會를 열기로되엇다 主로 稅制改正에 依하야 新設되는 地方財政分與制度에 對한 協議를하고 初年度九百七十七萬圓에 達하는 地方財政調整資金의 各道別配分 內示가잇을러라

趙膏藥 (廣告)

主効
간기, 회
夜泣, 氣絶
경련, 眩暈
감기熱, 지혜熱
吐乳, 靑便
胎毒, 虛弱兒

肺炎·麻疹·天然痘의
胃腸이病해서살이안찌는아해
에게오래連用시켜주십시요즐
겨먹기쉽게만들엇습니다

定價 二十錢、三十錢 五十錢、壹圓
本家 大阪天滿 樋屋合資會社 振替大阪二二六〇番

小兒良藥 樋屋奇應丸

咳 百日咳에 感氣咳에 小兒專門藥 咳滅 大阪天滿 大壽堂本舖

未就學兒童의教化策

各種講習會를開催

青年團利用, 指導에努力

皇國臣民教育에萬全을企圖!

총독부학무국에서는 미취학아동(未就學兒童)의 교화책(教化策)에대하여 신중한연구를 거듭한결과 신년도부터 총독부에 사회교육관(社會教育官)을두어 각도와 긴밀한연락을 취하여

一, 각종강습회를 자주열어 교화의 기회를 만히만들것

二, 청년훈련을마친 중견청년(中堅靑年)을 지도자로하는 청년단(靑年團)을통하여 교화에힘쓸것

의두가지 방법으로 황민교육(皇民教育)에 만전을기하기로되엇다 한편 금명양년간에 일천팔백개소의 청년훈련소를증설하여 백만명의 미취학아동은 학교를마친뒤 대다수가 훈련소를거처 중견청년으로서의 훈련을 철저히 밧도록할터이다

內地神宮巡拜 團員銓衡完了

빗나는 황기이천륙백년을당하여 강원신궁과 궁기신궁(宮崎神宮)의 식전(式典)거행하기로되엇는데 조선방송협회 경기도련합지부에서 단원을 동신궁과 각지신궁신사에 순배케하는동시에 내지각도시의 총후실태를 시찰하여 국민정신의진작과 시국인식의철저를 도모하고자 미리부터 단원을전형중이던바 요즈음 천내철부(川內鐵夫)씨외에 삼십팔명의 인선을마치엇스므로 일행은 경기도경찰부보 사본장(寺本章)씨인솔아래 오는이월십일일 오전아홉시 경성역을 떠나는열차로 내지로가서 이십오일 오전남부시유관에 도착하는열차로 돌아오기도 되엇다

乞兒凍死

삼십일밤오후여섯시쯤 부내광화문통일백이십륙번지압스레기통안에는 열두세살가량의가련한 소년거지가 벌거벗은채얼어죽은것을 행인이 발견하고종로경찰서에 알렷스므로 곳경성부에 사체를넘겨매장케햇다

戒命지키는오늘

精動各町聯盟會員總動員奉祝行事等協議

愛國日"長安의表情"一層嚴肅

이월은 황기이천륙백년의 빗나는 해를마지한달임으로 이달의애국일인 금일일일의 장안은여니때보다도 한층더 엄숙한가운데서도 봉축준비로 활기잇는애국일 풍경을보여주엇다 먼저아침일곱시반이되자 정신총동원경성련맹산하의 일백삼십오 정련맹(町聯盟)에서는 각기 지정된장소에 련맹원이집합하여 국기게양 궁성요배 묵도등순서를밟어서 엄숙히거행한뒤에 이달의상항에 드러가서 국기를좀더철저히 존중할것과 기원절봉축식에대한 봉축절차를 작정한후다시 때가마침 천연두가 몹시퍼저나가고 잇는 시절이니만치종두를한층더엄격하게실행할것을작정하엿는데 금주금연과 일채주의(一菜主義)는 애국일의 계명(戒命)이라 그처럼 번성하는 유흥가도 오늘하로만은 숨죽은듯 잠잠하고찻집들도 대다수가 문을닷더라 다방가(茶房街) 명치정(明治町)장곡천정(長谷川町)도 오늘만은 완전히 한산하엿다

皇紀二千六百年記念

郵票、表章發行

(컷은 기념우표와 기념스탬프 마-크)

빗나는 황기이천륙백년을 기념하기위하여서 체신국에서는 오는이월십일부터 이십삼일까지 주일동안을 기원이천륙백년기념우편저금장조주간으로 정하고대대적으로 저축장려에 기운을넷키로 되엇는데 특히 이번주간을 뜻잇게 표적하기 위하여서 기념저금통장에는 기념마-크를 부처주기로 하엿다 그리고 이것과 병행해서 이번기원절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기원절당일부터 기념우표도 널리 발행하리라한다.

出願權은期待權

出願權賣主는鑛業權移轉登錄의義務負責

高等法院의新判例

광산관계의 소송중가장만히 문제되고 까다로운 광업출원권(鑛業出願權)매매와 광업권(鑛業權)이전에 대하여 그판계를 명확히하여 광업출원권을판사람은 광업권을 이전할의무가 잇다는 신판례가 일일경성고등법원에서 내려젓다 이판례를 나케한 사건은 피고충남천안군입장면용정리(天安郡笠場面龍井里)일백륙십번지 최홍렬(崔洪烈)씨가 부내누상정(樓上町)일백번지 김충규(金忠圭)씨와 공동으로출원한 예천군상리면(醴泉郡上里面)소재의금은광석광 일백마평에대한 출원권중 최의지분권(持分權)을 원고부내필운정(弼雲町)일백삼십이번지일호 김희수(金熙秀)씨가 소화십이년이월 삼천원에매수하기로되어 그중오백원을 내고 남아지돈을 그달말일 갑기로 게약하엿섯스나 최가 남아지돈밧기를 피하엿스므로 원고는 이를 공탁하고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사이에 최와 김두사람의의로 광업권이 나오매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광업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하여 발단되어 이때 계쟁중 일일 고등법원에서 도변(渡邊)재판장으로부터 「광업출원권을 다른사람에게 팔아버린 출원인이 그의무이행을 지체하고 출원인명의변경의수속을 천연하는동안에이 출원에 의하여 판사람(賣主)명의로 허가가나와 판사람이 광업권의 등록을 바닷을때는 판매의 특약(特約)이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업는한 판사람(賣主)에대하여그후 그광업권의 이전등록을할 의무를 지는것으로한다」는 광업출원권의 매매와 광업권의의무에 대한 신판례를 내려서 원심판결을 시인하여 피고측의상고를 기각하엿다 이가튼 신판례를 내린 이유는 다음과갓다 소위 광업출원권이란 후일관청의 허가에의하여 광업권을 어들수잇는 광업출원인의 지위로서 이가튼 출원인의 지위를 보호하여 그이전을 인정한것이므로 그권리는 일종의 기대권(期待權)이라할것이다 따라서 출원권은 허가결파로생기는 광업권과 동일한것은 아니나 출원권을 나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출원인은 자기지위 즉 허가가나

私專內容刷新費

三萬三千圓計上, 各一校에五千圓씩補助

총독부학무국에서는 신년도신규사업예산으로 사립전문학교내용쇄신비(私立專門內容刷新費)삼만삼천원을 계상하엿다 종래사립전문학교에대한 국고보조는 경성약학전문 경성치과의학전문등 특수한학교에한하여던것이나 새학기부터는 남어지전문학교에도 한학교평균 약오천원의보조를주어 내용을충실케하는동시에 황국신민을연성(錬成)하는 교육의대목적을달성하기로되엿다

本社主催 女子氷上

女性스포-츠의最高盛事

銀盤의覇者를겨누는

女勇士八十餘名

來三日午後一時부터淸凉里링크에서開幕

参加팀十一校로盛况豫期

여자스포-츠계의 인끼를 왕롱미를한것이끄는 본사주최의 제유회전조선여자빙상경기대회(全朝鮮女子氷上競技大會)는오는삼일오후한시부터 청량리(淸凉里)링크에서열리게되엇다 이날에등장할 학교는 전문부에 이화전문(梨花專門)숙명녀전(淑明女專)이화보육(梨花保育)경성보육(京城保育)중앙보육(中央保育)등이며 중등부에는 평양서문고녀(平壤西門高女)함흥영생고녀(咸興永生高女) 동덕고녀(同德高女) 용곡고녀(龍谷高女) 이화고녀(梨花高女) 배화고녀(培花高女)등 열한학교의 여장부 팔십여명이 각종목에 참가한 연인원수(延人員數)가 실로 이백명을 돌파하는 초기록적 성사를 이루고잇는데 중등부에 잇서서는 장년의우승교 용곡고녀가 명선수 두명을 명치신궁에보내사이라 동덕고녀의 우세를 예상케하고잇스나 서조선의패자 평양서문고녀의진용이 주목할만하다 그리고 전문부의 우승교 이화전문은 손인실(孫仁實)선수가 지난봄 교문을 나서고 김병렬(金炳烈)양이 상해로 이거하기때문에 진세에 적지안은 타격을밧고잇다면 재작년의 우승교 경성보육이 동덕출신의 명선수 서병손(徐丙孫)양을 진두에세운것으로 승패는 자못주목할만하다

出場選手

◆梨花專門 韓貞順 金昌熙 鄭淳

◆梨花保育 金淑玉 方福順 林

◆淑明女專 近藤トシ子 劉永娟 李施德 李壽卿 韓錫順

◆京城保育 徐丙孫 金光姝 金順玉 鮮于恩仙 金麗義 朴貞姬

◆中央保育 金壽命 朴英子 元利姿 朴順善 全順寶

◆一般 李喜永 朴賢子

◆梨花高女 徐李洙 尹完富 金順玉 廣亨淑 韓明錫 張宜伯 尹玉順 金英瑩

◆同德高女 金淑在 金貞姬 金觀洙 千聖鉻 鄭周甫 朴順郁 黃愛蓮 宋正子 金仁淑 劉仁順 金京順 池先馨 朴惠子 金明羅 池允昌 宋明玉 李蘭子 金玉鉉 權炳瑞 劉誠玉 朴貞春 李榮淑 閔淑基

◆咸興永生高女 曺炳金

◆平壤西門高女 李熙子 蔡賢淑 蔡英淑

◆龍谷高女 中村禮子 山本貞子 大石眞子 瀨川幸子 山根晴子 松本綠 村上花子 小林三枝子 廣幸枝 大橋淳子 大橋節子 保住榮子 李和子

◆培花高女 劉泗山 朴明子 韓明順 金賢鐸

學校衛生官設置

各學校의體位向上運動指導

국가총력(國家總力)을 발휘하는 기초조건이되는 국민의체위향상(體位向上)은 사변후에 일층 각방면의 주의를끌고잇는데 몸을 튼튼히하는데는 적당한운동과아울러 위생을 철저히하여 질병을 미리막는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총독부학무국에서는 이와가튼취지로 국민의중견이되는 청소년학도에게 위생사상을 일층보급시키고 학교로하여금 위생시설을 철저히하고저 신년도부터 새로히 전문지도감독관으로 총독부에 학교위생관(學校衛生官)한명을 두기로되엇다

同僚衣類를窃取

【城津】 성진시내 쌍포정(雙浦町)일본고주파공장에 직공으로잇는 본굴선일(本堀善一)(二○)이란자는 그회사합숙소에잇스면서 지난십오일경부터 가튼합숙에잇는 동료들의 양복기타의소지품을 전문으로 훔처서 파러먹다가 들켜 성진서에 체포되엇는데 범행은 전후십일회가량으로 피해액이 오백여원이라고한다

餘錄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 내어찌부모가 주신 살결에 칼자욱을 낼것이라하고 종두를거절하고 울톡한젊은여인이잇다 ◆딴은 내것아닌 내몸이라 어려서는 부모의손에서 길러낫고, 커서는 남편을마저 매인몸이니 내것인냥 내것아닌 몸뚱이에 칼자욱이란 질색할 「칠변」 이아니냐, 소부의 단순한생각에 그럼직한 일면의 진실이라고 세상이 태고적가트면 효녀문세울 공론이라도 몰 잇스렷다◆그러나 세상은 물과가치 흘르고 흘러 한곳에 머물러잇지안는 무정한것일진댄 생각은 한생각에 흘러업스나 전능을가치한 오늘세상에 잇서서는 이를가르켜 어리석고 속맥히여자이라 조소가 비빨치듯하는것이로다◆소북, 청숙만하면 제일이라하가 귀중에 파뭇처잇슬망정 널리 바가진눈을 소홀히말고 무지해도 효도의본바랑을 일치안토록 명심할지어다

舊年末特別警戒

今夜부터本格的査察開始

삼십일일밤에는 안성(安城)그다음날에는 부내종로(鍾路)오정목에 식도강도가 발생한것등 구년말을 압두고 경향에 강도소동이 뒤를이어 발생하고 잇는데 부내의 연말특별경계는 금일밤오후여덟시를 기하여 시작된다 이번특별경계는 음력그믐날까지 지일주간동안 부내각서원이 총동원되어 실시되는데 이상가튼 강도사건이만허 매우 긴장한가운데 진행케되엿다

집二百貨車, 慶北에輸送

철도국에서는 일일부터 약한달예정으로 원산철도사무소관내 즉함경남도지방으로부터 「집」 이백화차를 경상북도지방에 실어보내기로되엇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한재민구제대책으로 가마니짜기를 장려하는데 그원료로 쓰게될것이라한다

朝鮮事情宣傳 寫眞募集

총독부문서과에서는 조선사정 선전용으로서 일반에게 다음과가튼 규정으로부터 사진을 모집하기로되엇다

피사체(被寫體)는 국민정신운동 농촌진흥운동 교육 문화 위생 산업 교통·풍경 습관풍속 시국을 뉴-스화한것 기타모든사정을 각방면으로 선전할수잇는것으로 당선작은 마감날을정하지안코 계속하여 응모를접수하기로되엇다

一, 캐비네판

一, 상금 일건마다 박-이 일금오원을증정

一, 판권, 총독부소유

一, 보낼곳, 총독부문서과장

學生窃盜團

本町署에서摘發

부내 본정서에서는 삼십일일정복 오후다섯시쯤 본정(本町)일정목 대판옥(大阪屋)책방에서 책을훔치고잇든 소화공과(昭和工科)학교본과삼학년생 경의웅(景義雄)(二○)을 붓잡아다가 취조중인데 경의웅은 동교학생 그학교생도 네명과가치 작년십이월 이십일경부터 부내각 서점에서 이십수회에걸쳐 책을훔처다고 자백하여 근래에업는 학원의 불상사로 취조경과는 매우주목되고잇다

明治神宮氷上

明日로遂迫頭

聖恩旗奉迎式擧行

【上諏訪電話同盟】 明治神宮大會冬季競技의序幕인 스케-트競技는 二日 霧峰山麓의湖에서 盛大하게 開幕할터인데 이에압서서 一日午後 上諏訪에서는 聖恩旗奉迎式을 行하엿다 聖恩旗는 厚生省, 體育課中川, 同施設課伊藤兩事務官이 捧持하고 午前零時半 新宿驛으로부터 到着하여 奉迎式에 옴기바 縣內縣長室에서 立教氷上호케-主將伊藤周君이 捧持하고 草刈(明大氷上호케-)張船偵(關東스피-드)大스피-드矢野庄(關東스피-드)中川(北海道스피-드)五選手에 護衛되어會場에 나타나자 國歌吹奏裡에 一同奉迎 聖光燦然한 嚴肅한氣가 四邊을蔽하엿다 齊藤體育局課長을 先頭로大會委員友末厚生省體育課員 先頭에서나는 聖恩旗에 따러서 本部役員 北海道, 東北, 關東, 東京, 中部, 關西, 朝鮮, 關東州及滿洲의 各地選手團이 四列縱隊로 堂堂히 市中을行進하여 沿道에는 諏訪中學, 岡谷工業, 高島小學校, 靑年學校生徒婦人各團體, 鄕軍等數千名이 堵列奉迎하여 奉安所에 到着하여 奉安하고 式을 마치엇다 그리고 一日午後二時부터 湖畔片倉會館에서 上諏訪町主催의 選手歡迎會, 午後六時부터 神宮大會의밤으로 映畫講演會를催行할터이다

"前人未踏地에도 鐵瓮城가튼國境警備"

國境警官慰問의伊藤警務課長歸任談

북으로는 조선의뒤동수를 차고도라간 두만(豆滿)강을 가로노코 서으로는 조선과만주(滿洲)양국경을 끼고잇는 백두산(白頭山)을 여메두고 동으로는 조선의머리의것인 서수라(西水羅)에대해안을끼고잇는 북조선국경제일선 경찰관을 지난달이십사일이래 일주일동안 위문중이던 총독부이등경무과장(伊藤警務課長)은 예정의일정을 무사히 맛치고 일일오후한시 오분(오후영시이십분)차로 입경하엿다

이번 이등과장의국경제일선경찰관 위문시찰은 종래의그것과 특히달르바가잇다 두만강연안우산군(上三水)까지 전혀(天險)이 수(上三水)농사동(農事洞)에서 상삼봉(上三峰)을 거처 고선동(古城洞) 용현동(龍峴洞)을 거처 토리동(土里洞)중산동(甑山洞)등 제일선 국경을 선하나 도서수라에서 장고봉(張鼓峰)까지 이번이 처음이고 경찰관의 위문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국경제일선 경찰관의 용감한 긴장한 가운데에서 활약하는 노고(勞苦)야 어데륨하라 마는 통이번에 처음으로 위문한 동서양변지일대는 더욱심하다 서으로 상삼수일대에는 영하삽십도 내지사십도의 혹독한 추위이상이여련선의주민은 모두실혈만 이상여련선의주민은 모두실혈만 천석을 감석에공봉하여한더이나 예측할수업는형편이다

(江華支局電話) 육지와의교통이 두절되어 전선봉쇄상태에빠진지 가 상주일이나되는 교동도(喬桐島) 서도(西島) 삼산도(三山島)등 여러섬에는 아직까지교통이 복구될가망이보이지안는데 그교통은작년동에도 한해로말미아마 흉작이엇기때문에 군당국에서는교해진다고하드래도 당분간은 방법이오히려 심한까닭에 금후며칠동이두절되기바루며칠 잘곡일 이 복구될는지 예측할수업는형편이다

隔離된孤島에

憂慮되는食糧難

江華隣接의各島嶼

오천에달하는 다수로 두절된이 래 지금까지식량은 조금도 공급하지 못하엿을뿐아니라 일체 동신까지도 두절되어 그곳의안부가지못하게되엇다'

그런데 금월일부터는 다소날씨가 풀리는것가트나 따스하게 더치고하드래도 당분간은 방병이오히려 심한까닭에 금후며칠

숲한마에몰 일곱되를섯거

부내숙정(淑井町)이가(二丁目)용인 강수(?)(川成(?)) 이카(二丁)씨의 성인부 ... 리방가시장에 미곡을(一斤)을 비싸게 판매하다가 동대문서에 발각되어 조사하고잇다

不正米商摘發

부내노고산정(老姑山町)광신오번지 미곡상인(米穀商人)으로 경기도 무허가 미곡상을 하엿는데 기화로 작년시월부터 지금까지 말하자면 이원이더한 이신상인으로 청부하여 팔다가 서대문서경계에 잡히엇다

安城에도强盜

일월삼십일일오후 열한시 반안성읍내(安城邑內)의 (二十)식자(?)미싱 김성 명실(明實)을 찾아 강도는 방청명만 당하여 여러가지로 도구를 사용하는 여자로 위협하고 또 후 한 말을 하되 수백을 다녀간 고 곳에 돈을 뺏아가지고 달아낫다 이계를 받은 안성경찰서에서는 삼일일일 도내각서 에 수배를하고 범인을찾는 중이다

孔德町에서詐欺

...

中風、半身不遂、動脈硬化에는

心臟病、內腫、痰腫에는

原因療法을하여病뿌리를업새야납니다

原因療法으로 第一血液을淸血시키고 여러가지毒(梅毒、淋毒、酒毒、煙毒、藥毒、蛇毒)을 排泄시키며 五臟六腑를 補하는데 비로소 眞正한治療法의 鐵路가 됨니다 單只其局部에만 作用하는藥을 使用하여왓스므로 健康을獲得할수잇슴니다 在來治療가 效驗이 잇섯다고하는 病의根源을 각석하는데에 바로 眞正한「海草精」은 ... 每日가치 效力을보아 ... 强大하여 貴下의痼疾을 곳치소서 服用하는날로 氣分이 ...

一個月分九圓三十錢 二個月分四圓九十錢 送料三十六錢

京城府鍾路六丁目二二六七番地 東亞化學研究所 振替京城二三○九八番

精密한病理와 治療方法의 冊子를 無料送呈

警察官(講義合部全書)

朝鮮及滿洲警察官志願者는 本書를 ... 鮮滿警察學會

歐米各國特效藥及入院室完備

韓箕道內科醫院

米國生物醫學士 韓箕道

京城鍾路三丁目七番地 (パコダ公園正門東側電車線邊)

電話光化門③一八七八番

모루히네 代用

醫學博士 朱鍾勳先生 實驗推奬

最新强力・鎭痛・鎭靜・鎭咳・麻醉劑

オネモヒナール注射

發明完成

身分證明書不要의代用藥 包裝及價格 一○管入 一、二○ 五○管入 五、○○ 一○○管入 九、○○

製造元 天光製藥所 京城府花園町一七番地

販賣元 朝光信業社 振替京城三二四番

(資格者限 文獻贈呈)

어린이의善藥

小兒肝氣散

京城府阿峴町七七 製造元 普生藥房本鋪

藥壽 (卸) 森藥房

藥品新藥

新規開業者는特히相議에應함

京城本町四丁目 木村藥房

五山中學校 生徒募集 (京畿 義邑)

募集人員 第一學年 約百五十名 (詳細要項會費三錢切手封入)

出願 三月十日限 試驗 三月二十日부터五日間

明新中學校生徒募集 (載寧邑)

第一學年 約百名 出願期間 三月十五日迄

入學試驗期日 三月二十五、六、七、八、九日

光成中學校生徒募集 (平壤府景昌里)

第一學年 約一○○名 出願期日 二月二十八日迄

試驗期日 三月廿二、三、五、六日

新入會員大募集

中學科講義

小學校第五・六學年 學科講義

中學科 三十冊 一冊六十錢 六冊三、八○ 十二冊 五、三○

小學科 十二冊 一冊五十錢 六冊二、一○ 十二冊 四、○○

우리朝鮮人本位의唯一한中等講義錄이며 朝鮮語、漢文科目가잇는것 外他講義錄에比하야 會費도 거의半額입으로注意하라

京城府和泉町六 朝鮮中學會 電話(光)一八八四番 振替京城三一、六三六番

朝鮮作家名作全集

改訂版發賣中 現行六法全書 ¥480

日鮮文規行 最新書式大全 ¥300

三回配本 發賣中 (定價各二圓二十錢送料各十錢)

永昌書館

말더듬이

訥言에惱하는분은지금즉시오시오 京城府西大門町二ノ一○ 訥言矯正專門院

朝報案內

讓店 花園町公設市場內 ...

洋服 國民服、紳士、學生服 ... 京城府黃金町 馬渡洋服店

合服 御註文 承開始

丁子屋の誇り—生地・仕立の優秀と價格の絶對適正

(合セビロ・合オーバー・合夏服服地揃)

二月一日より 二階洋服部

クリーニング部新設

丁子屋

續新文學史
"新小說"의 擡頭 (一)
林 和

第三章 新文學의 胎生
第三節 新小說의 出現과 流行
A 新小說의 意義와 價値

唱歌의 作人이 在來의 詩歌를 改革하는 先驅가 되고 新詩가 生長되는 端初가 되엿다면 小說의 領域에서 그러한 役割을 한것은 新小說의 出現이다. 唱歌가 처음에 四調와

가를 뭇은·漢文의 形式에다 새로운 精神을 담어 가지고 出發하여 新文으로는 새로운 精神에 適和되도록 낡은 樣式을 改變하여 나갓다면 新小說 亦是 처음에는 舊代의 傳記小說이나 軍談이나 艶情小說等의 낡은 樣式에다가 새로운 精神을 담는데서 出發하여 나중에는 새로운 精神을 表現하기에 適合한 小說的 構成件과 樣式을 取得하여 現代小說이 發展될 第一의 礎石을 노핫다고 할수가 잇다. 그러나 實際로 新小說의 發

展過程은 반드시 우리의 唱歌와 新詩가 밟은 것과 같이 새로운 精神을 담은 作家가 먼저 나고 그다음에 새 精神에 適應한 樣式이 發生되는 順序를 밟지는 안헛다. 무엇보다도 新小說作家中에 가장 큰 李人稙이 누구보다도 먼저 新小說 中에 出現하엿다는 事實은 이러한 事情을 說明한다. 李人稙은 단지 가장 優秀한 新小說作家일 뿐만 아니라 實로 新小說이란 樣式을 創造한 사람이다. 李人稙의 손으로 비로소 新小說이란것이 朝鮮文學史上에 登場한것이다. 그의 小說의 影響을 바더 다른 사람들도 新小說이란것을 쓰게되고 讀者도 亦是 그를 通하여 新小說이란것을 알게되엿다. 當時의 著名한 新小說作家로 現在의 唯一한 生存者인 海東樵

人 崔瓚植氏의 作品 『秋月色』 ... [illegible] ... 李人稙의 『雉岳山』을 우리 新小說 ... [illegible]

그러나 新小說은 ... 李人稙 ... 『鬼의聲』 『血의淚』 『雉岳山』 『牡丹峰』 ... [illegible]

三十八─明治四十年(光武九年─隆熙元年)年間의 所作이라고 보아 좋다. 現在 내가 본 新小說의 發行年代가 隆熙年間 넘은것이 없음 ... [illegible]

古代詩歌의 美

古歌今釋 (二篇)
─麗謠評注의 一節─ (三)
梁柱東

別을 敍하여 먼저 님을 따름을 敍한 이 또 잇가」 ... 愛情의 ... [illegible]

── 한 兩樣의 意思를 寓하엿스니 「은 애끈는 別恨을 알기때문에 될수잇스면 이盞을 마시지안코저 한번더 慇懃히 남께 遺行을 願한것이니 이는 本聯의 正面的意思요, 他는 이別이 지신로 無奈임을 알새 짐짓 本懷를 逃하여

現實
파 對照함이니 이는 그 裏面的 境地이다. 그리하여 作者는 이 首聯에서 먼저 自家의 慇懃한 素懷와 懇切한 衷懷을 正寫하면서 隱然中에 無可奈何의 別離의 原因이 진실로 彼吴에 잇고 我에 잇지안음을 어느름에 夾寫하여 글자대로 如怨如慕의 情緒를 完全히 表現함에 成功하엿거니와, 한편으로 우리는 또 박게 이한 낫 漢詩의 歌詞에서 다른 것아닌 春秋作者의 隱然한 筆法을 연보게되니 또한 一奇라 할것이다.

구스리 바회예 디신들 긴힛던 그츠리잇가 즈믄 힐툴 외오곰 녀신들 信잇던 그츠리잇가

次聯은 興이다. 兩聯에서 우리는 此別이 無奈임을 알엇다. 님을조ㅊ이 진실로 所願이언만 그럴 엇지못하매 오직 別이잇슬뿐이나 別을 뭇하기前에 다시 無數纏綿의 情과 許多慇懃의 辭가업지못할것이니, 이는本歌의 用意가 元來 鶉都로 直走커나 子午谷을 蹈度코저하는 奇兵의 術이 아니오 어디까지나 正律을 건너고 法을 依하여 田田코저하는 上下의 法을, 擇한以上 不得已한일이다. 그러면

正師
무엇으로써 이 纏綿과 慇懃을 簡潔히 또 印象的으로 表白하는가 잘되 別이 無奈면 오직 彼約이 잇슬뿐이오 彼約이 丁寧하면 옹당 山盟과 海誓가 잇슬것이나 彼約은 매양 支離하기쉽고 山海의 盟誓는 흔히 凡俗에 흐르기쉬운것이니 이 境遇에 適當한 辭는 무릇 文雅·凡庸하지 안흔, 가장 淸新可喜한 天籟的 筆法임을 要한다. 그럼으로 歌者는 本聯에서 문득 人意밧게 나서 賤疾와 纏綿을 표현하여 써 信의 不渝를 盟約한것이다. 구

가 잇스니, 하나는 起興의 情調가 敍情의 內容과 緊密히 交涉되면서도 그 形式은 어데까지나 일부러 比喩的이 아닌, 極히 自然스러운 語勢라야 할것이오, 또하나는 起興의 素材가 極히 生生하여 사람의 意表에 나오면서도 實은 極히 恒茶飯의 日常

日常
의 事實에서 取材되여야 할것이니 約言하면 興이란 缺한듯 親하며 遠한양 飾하고 窮極한채로 더高流하든 習俗이 잇는것을 想起할것이니 大盖 이 起興은 거저 抽象的 譬喩나 男女의 擲出이 아니오 본대日常生活의 慣有의 事件을 適用하여 擧來한것이라, 어대까지나 齊語의 痕이 업는 極히 自然스러운 取材인 것이다. 本聯은 더구나 古朝鮮人의 信義를 如實히 보이는

入學案內

學校	募集人員	願書受付	試驗期日
京城保育	五〇	自二月一 至二月十五	二月二十
中央保育	四〇	自二月一 至二月十八	二月二十
京城家政女校	五〇	至二月十九	二月二十一
東京日本女子校	四〇	至二月二十	二月二十二
新京高女	四〇	自二月一 至二月十九	二月二十一
馬山高女	六〇	至二月二十	二月二十二
大邱啓聖校	五〇	自二月一 至二月十九	二月二十
大邱信明女校	五〇	自二月一 至二月二十	二月二十一
梨花女高	一〇〇	至二月二十	二月二十二
淸州商業	四〇	至二月二十	二月二十三
公州永明實業	五〇	自二月一 至二月十五	二月二十七
明新中學	七〇	自二月二 至二月十五	二月二十一
龍州公立農業	四〇	至二月十五	二月二十二
會寧公立商業	五〇	至二月二十	二月二十三

◎畵家의彫刻◎……②

獨逸畵家 『케테·콜비츠』의 自畵像이란 彫刻이다 그는 現代獨逸의 有數한 畵家다 아래것은 『오─규스트·르노아르』 一八四一─一九一九)의 『비─너산』 으로서 그는 佛蘭西의 有名한 印象派畵家다

斷想…❶
精神의 祝祭
毒鳳九

×새해에 우리는 白川이라는 조그만山村의 溫泉舍를 차저가 그곳버의집에서 透明한며칠을 보냇다 『레몽』 箱子가 든 鄕愁를안고 돌아왓다. 이날밤나는 참으로오래만에 享洪의 마음을 읽고 가장 健康한 것속에 가장아름다운노래가 담긴다는 『지─드』 의말과 또한享洪와

×『가장가까운 대죽생각하엿다. 이미만낫스면 언제나 몰래지리라 떠낫스면 언제나 돌아오리라 오, 어디서오는 信仰인가 우리다만 마음속으로 기다리리라 또한 낫선異邦사람처럼 우리 그저 지나치리라』

×孤獨과 悲哀가 絶頂에 이르면 虛無로 돌아간다는것은 감잔 『쎄지멘탈리즘』의 偏見이요 참된 孤獨과 슬픔이란 언제나 제自身을 좀더 嚴肅하게 새로운精神에로 飛躍시키는 恒常停止할줄모르는 人間

파 悲哀가 極絶頂에 到達하면 나오는 무서운 흥이요 참된 외로움에서나 나올수잇는 孤獨의 絶한 別離와 그리움의 노래엇다.

이 『마음』 은 그와 가장 가까운 너하나뿐만이아니라 젊은 우리들과도 一致되는 精神의 合唱이 아닐수업다.

×너도 나마 제自身의 肉體마저 그 沈沒하는 環境속에서 버서나려는 마음아래 色다른 地域을 그리워하고 이곳의 法을 그리워하엿기 못내 모든 물리속에서 몇번이고 脫却해서 울에 와선 그런 할일은 無氣力한 周圍에 倦怠를 느끼가면서도 位置와 環境을 바꾼다는 瞬

×『아푸리카로가라, 아니 아라스카로가라! 아니 沈沒하라 沈沒하라』 또한 『排徊』 에서 山새우는 歲月속에 붉게 물든 山峽에를 떠먹으며 이저버리자 이저버리자 히부얀조히얼굴미테 애비와어미와 게집을 勸哭하는고을 興家와가 튼줄다리를 그들의 會話 習慣을 파 『랑보─論』 에서 『一切의 過去를 休紙처럼 불살르고 그대가고 無와 가튼 沙漠을 가질때 不細이 分解하며 닥칠때 한개의 制限된 『아라비아』 沙漠은 正히 한개의 神의 道路의 無限에 彷彿햇고 그대의 피루 섞이 된 正午의 肉體는 能히 한개의 『랑보』 에 該當햇다』 하여

의 마음 속에 피는 한떨기 꼬치요 運命의 『쏘나타』 이다. 한 사람들이 쉽게 버이지 못하는 『마음』 은 生活을 通한 孤獨의 悲哀와 한가닥의 別離를 노래햇스나 ... [illegible]

『마음』이 이얼고 닥낫서드르면 別離를 ... 精神을 『마음』은 잇스면 ... 별의 別離의 ... 가

庚辰史話
三大罪人의 亡命 (四)
黃 義 敦

(3) 北門士禍의 慘劇

燕山主 光祖 ... 一般人心의 公正한 改革과 急激한 ... 中宗도도 ... [illegible]

金淨, 洪景舟, 沈貞, 南袞, 金詮, 李長坤, 高荊山 ... 光祖를 ... 中宗 ... 五日夜에 神武門(景福宮北門)으로부터 入闕하여 ... 十一月十五日 ... 光祖 ... 金淨 ... 大司憲趙光祖, 副提學金絿, 刑曹判書金淨, 大司成金湜, 承旨柳仁淑, 朴世熹 ... [illegible]

十餘人이, 光祖의 寃을呼訴하엿다. 同日에 成均館生李若水等百五十餘人이 光祖의寃을 呼訴하엿고 十七日에는 世宗大王 ... 十九日에는 成均館生 三百餘人이 또 上疏하여 光祖의 寃을 力辨하엿으나 不許하엿다. 그리고 光祖는 綾城(和順)에 ... 世宗大王 ... 에 分配되엿다.

生, 綾城郡縣은 ... 何者 나ㅎ ... [illegible]

海燕 (全一幕)
一等當選戱曲 (劇團高協上演脚本) (4)
成世德 作

脚色 鄭玄雄 / 스틸…劇團高協

006408

尹食知 주사를 마저야만 되는걸 가구라 갖추부 밭을 끈주 약밖에만 밋바닥이 달루욱 엉겨(剝)만 대러면어서 군요.

安醫師 그건 하협하는데를 먹지요.

尹食知 며칠전에 청국처 들어온 유선에 종탁자한자가 타구 있섯다나요 그놈이 바다에다 뚱을 갈겟슬테니까 고기들은 모두 그 전염병을 가지구 잇슬꺼애요. 그래서 미너를 잔뜩 잡어들구 항꾸가니까 배를 대기가 무섭게수상한 사람처럼 끄러가 그대루 몸에다 버리라는군요 그러지 안허두 그걸팔면 한번 차저가 뷔구 모시구 올러구 햇섯습죠.

燈臺지기 치료빈 디럿나?

尹食知 그냥 공으로 뵈주섯답니다.

安醫師 (아까와는 딴판한 상냥한 語調)너머 노엽게 생각마십쇼. 지금 이 영감애길 들으니까 영감님께선 전연 두사람의 사이를 모르셧다구 하는군요. 난 그런줄 모르구오 해를 해섯습니다. 몹시 맘속이 불안햇구 또 혼난 힘적가치라 하밤루 불오핫 힘적가 틀 소털 엿쥐서 어떠케 죄송한지 모르겟습니다.

燈臺지기 온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安醫師 더구나 요전장마에 천막이 날러가구 우리아이가 가도오도못하게되엿슬때 영감님께서 제일먼저 걱정을 하시구 손수 배를젓구가서서 구해까지 주섯다는데 난 그런일두 전연 모른채 나오는대루 말을햇섯습니다.

燈臺지기 조금두 난 거리끼게 생각지 안습니다.

安醫師 (珍淑에게 多情이 넘치 말아용 내가 심한말을 엿줬기때문에 아버님께서 좀역정이 나서서 꾸중을하신 모양이에요.

燈臺지기 그대루 두십쇼.

安醫師 사실은 그녀석두 어꺼내가 야단을쳣더니 밤두 안먹구 집을나가서 오는까지 안들어오는군요. 부모마음 자식모른다구 사랑하지 안흐면 워야단을 치겟서요?

燈臺지기가 (不安속에)그럼 그애가 어떠케슬까요?

安醫師 (눈물이 글썽글썽 해지

그래서 세진이가가더란두 설대루 배를 태수지말라구 단단이부탁을 해놧서요.

燈臺지기 그 잘하섯습니다.

安醫師 그러지만 세상일이란두 가 알수잇서요? 그녀석이만일 목선이나 빙선(氷船)올라 구 올지도 모르니까 오더래두 잘 애기해서 돌려보내주세요.

珍淑 (寂寂이) 네!

安醫師 (머거뿔 가다가 다시발을 멈추며 燈臺지기에게) 어려하시겟습니까만 이루 사정보시자 말구 투두이 야단을 치셔서 그놈이 다시 이섬에 발드려노치 못하게해주십쇼.

燈臺지기 염려마십쇼.

安醫師이 여울로 들어오는데

린질 버락을 辟縣한듯이 서 잇다.

燈臺지기 난 올거거니와 윤칩 지두 올거섯나?

尹食知 버 벌써 부려 왓진….

燈臺지기 그런데?

尹食知 뭐어른 서면 잘 아니까 마일 이어애길 햇다간 당장 난리가 나겟기에 차일 피일 밀려온게 구만….

燈臺지기 대관절 어느때 내눈을 속엿나?

尹食知 저녀 잘수구 책보질때 엇지요.

燈臺지기 그런말 들으면 그하생이 저를 누나라구 불른다는데 정말인가?

尹食知 네! 그대가 언제가야 모른 원한 일한이엇서요 낙

尹食知 그호루 여러번 타일르긴 햇구 낙시군 꽤에 빠져 봇다리 싸가지구 도망간 연자지기 뎀배 애기두 했구요.

燈臺지기 진숙이야래 년분에시 집보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학생 전도를 까타하단 망처놋게 됏스니 걱정이란말이야 어저께 나간애가 오늘까지 안들와다니만일 어린맘에 자살이라두 해보게. 그에 부모가 날 얼마나 원망하겠나? 이게 모두 청지 주책업는짓 때문이야.

尹食知 그러지만 내야 쇠뚝이한테 시집가지 쳘루는안가겟다구 대기(甲板)에 발을동동 구르는데 파러먹어지 만곳두원한이 잇다구 제비장가치노는 건들을 고자질해 서야단을 맛게합니까

燈臺지기 (激昂하여) 고자질? 자네 그 걸말이라구 하나? 어린것들을 잘못을 보모한테 애기 해서 다시못하게 하는게고 자질인가?

尹食知 (입을 비쭉하고 머리를 북 긁으며.)

燈臺지기 자네말대루 고자질은 해달래진 안케네만 자네더러 또쟁이 노릇 해달래던가? 웨 배는태가지구 근방섬을 돌아 데겟나?

尹食知 배라구 지납지마다 『갈 파리먹구 잘틀링갑도왓다구』 눈물을 흘림던거리구 악담하는 쇠뚝이놈보면 서루 조하하는것들 서레면주켜주겟는 가 저러요 (곱은몸숙서며)내자신은 뭇해쥣스니 회풍리루 라두 그대신 진숙이한테 잘 해주게다는게 어쩌다 이러케 들어젓군요.

燈臺지기 어젖츠 엉뚤루 몸이

야단을 마지섯군요?

尹食知 그럼 네가 알면, 것다 만나구 온놈은 그냥가랑

世興 여기까지 와다 어떠케그냥 가요?

尹食知 그럼 네가가서 불르든해라.

世興 내가 어떠케요?

尹食知 날더러 똑쟁이라구까지 생각하섯단다 모두들 한패라구.

世興 (놀라며) 너 사공더러 하세요?

尹食知 (놀라면) 너 사공더러 라구만 하세요?

世興 필라구 가라구 자가 오늘만 날이나 어디? 오늘은 다수굿이 그냥가랑.

世興 기다리라구안그랫냐? 으루 바루 가는밴데.

尹食知 갈땐 어떠케갈라구 다저녁때 여길 온단 말이냐? 世興 못가면 모래바터서 자지 요 뭐.

尹食知 아─니 누굴 죽일려구 어졌두왓냐?

世興 영감님 안녕하섯서요? (고개두 안든 인사말이 끝나자) 오─냐.

尹食知 너때문에 여기서 남의 가섯다. 너아버지가 오서서 너이들 사일모두 입러바치섯단다.

世興 그래 어떠케 됏서요?

尹食知 진숙이버진 몹시 화가 나서서 구지보라한구 갑판에 다구 한참야단치시다 지금에야겨우 올라가섯다.

世興 내그러케될줄 알엇서요.

尹食知 나가사끼(長崎)어떠케 잇서 조기들구 애평으로 가는 배에 가잇기에, 보듯구 떼를 썻지요 그래 누나두 막 야단이에요.

世興 아버지표파는 이한테 말을 해두섯나봐요 당최 배를 태워야지요 할수업시 야끼집에서 조기들구 애평으로 가는배

尹食知 말마랑 지금두 올구잇슬게다.

世興 좀 불러주세요.

尹食知 안돼! 이번에 들켯단 너이들은 고사하구 내가 여길 내 쫏끼게 될꺼야.

世興 나때문에, 애맨 령감님두

世興 네! 나때문에 누나가야단을 마젓스니까, 잘못햇다구사과해야하지 안켓서요?

尹食知 (躊躇하다가 突然이 생각난바가 잇는듯 충대를 올라간다.) 周圍를 두리번거리다 니 板墻넘어로 손짓을 한다.

世興 (躊躇하다가 손을 입에 대는것은 떠들지말구 빨리 나오라는 信號)

世興 (紐繩에 찬소래로)누나!

珍淑 (바가와파 不安에 차여) 어떠케 와섯요! (尹食知를 보고)아버지 나오시나 좀 봐주.

尹食知 『잠간 애기하구 돌와야한다』 하고 망을보러 집으로 내려간다. 珍淑과 世興이 나란이 충대를 내려온다.

스틸… 沈 影의 燈臺지기와 朱仁奎의 安醫師

山居閑題 ③
……續·宮村記……
李 無 影

健康氏

『健康氏는 지금 어디로 떠낫느냐?』

우리집(治...)

── 健康氏는 그때 生活의 態分이다 ... 感覺에서 世上이 떠들석하자, 나는 갑자기 健康氏가 아수어진다. 咸南에서만 떠들는 그래도 大凡하니 잇을 수잇섯고 種痘를 생각도하다 마다햇더니 近者에 十里도못되는 近洞에까지 患者가 생기고 그것이 動機로 檢擧을 한結果 意外에는 腸窒扶斯까지 發生햇다는 消息에

혼자 굴뚝이 생각햇다. 五年前 亦是 浪人으로 잇는때 나는 이 宮林에와서 一年가까이 잇스일이 잇다. 三淸을 拾해서 三十戶박게안되는 山村이기는하나 治도잇고 또 마친 徐君는 親戚도 생기고해서 閑日月을 보내고 잇섯다. 지금군울나무나마 뜨더다때게 되엿도 그때 一年間의 餘裕이오 野山이기는 할망정 나무지개를 지고 山비탈을 오르나리는것을 배운것도 그때 生活의 態分이다.

健康氏는 그때 우리집(治

집)바로 여페 살앗다. 舍廊에서 대고 불으면 그의 궁허가를房에서도 곳 알아들을수잇슬만한 距離엿다. 姓이 뭐든지는 이젓스나 亦是 李書房가 십다 四十餘歲의 中年男子로 머리도 깍갓고 코밋수염도 길럿서 차리고만나서면 으젓한 紳士엿다 되빡이마에 악간 주머럭이 진것이 우리가 어렷슬때 故鄕에서 보던 『이시까와상』 하고비젓하다고 治과 이야기 한일도 잇섯다.

내가 宮村으로 처음왓슬때는 그는 不幸히 喪妻를하고 아들兄弟만 데리고 잇섯다 이제 겨우 철떠러진 어린것을 둘치엇고 朝夕이며 절구질, 빨내, 안하는것이 업섯고 나중에는 또 품을 팔다 治의말을 드르면 宮村 三洞中에서 궁하는 사람이 徐君과 이健

康氏뿐이라고 햇다. 亦是四, 五六斗落의 小作人으로 生計도 더운이 업섯스나 洞中의 出生屆, 死亡屆, 무슨契約書, 一切를 그가 擔當햇섯다. 代書 리하여 저녁마다 新聞을 어더다가는 寫本까지 精讀을한 다.

『아람해도 伊·에 問題가 無事치는 못할 모양이지요』 이런 이야기도 햇고 當時의 內外國의 首相이니 藏相, 總督府의 高官들의 姓名은 우리보다도 精通햇다.

길동한 記事만 보아도 금방 잘처 잇다. 무슨 法令이 생기면 그 法令의 境遇도 업는 生活態度가 一變하기나 하는 것처럼 온洞民에게 不安을주었고 山林保護에 關한 무슨法令事項만 들어도 금시에 山의 雜木에 黃金덩이나 매어

달린듯이 떠든다. 納稅나 棉花增植이나 面이나 郡의 指示가 떨어지기 무섭게 洞民에게 說明한다. 必要란 程度에서 그치는것이 아니고 無知한 洞民에게 不安을 줄만큼 떠들어댄다.

그에게 "健康"이란 이름이 생긴것도 그조혀다. 그는 强한것도 健康, 신성한것이다. 例를들면 잘자란 樹木을 보고서도 이러케 말한다 『그나무 참 健康하다』 原名을 버서서는 모다 通洞사람들도 健康氏라면 알만큼 그의 別名은 有名해지고 말엇다.

그해에도 洞中에서 腸疾扶斯患者가 發生되엿다. 그러나 理解업는 患者와 患者의 家族이 官家에 隱匿하는者가 잇스면 그洞里에서 憂患

다고 미리 脅迫을 하는더라도 傍觀할수박게업는 形便이엇다. 그러나 이말을 듯자 健康氏는 憤然히 일어섯다. 『豫防注射를 할테건 내집에 불을질러라! 라면 二十圓짜리 집이 타는것이오 一千圓짜리 집이라면 洞民들이 救濟된다!』 그날도 全洞에 消毒이되엇고 豫防注射를 實施되엿다. 多幸히 健康氏의 집도 안탓고 未然에 病菌도 撲滅되엿다.

──이 健康氏가 지금은어느洞里에 가서 사는지 모르되 그洞里는 분명히 福바든 洞里다 眞一 그만 아직도 이 宮村에 살아 잇다면 지금처럼 腸窒扶斯을 알리지는 안을것이다

健康氏 ... 다시 洞民을 爲해서 健康을 위하야 ... 氏는 다시 移舍를 안오려는 지……。

災害對策과農業企業化

水利施設의發展相과 差額地代의漸減

(三) 鄭和濬

貴水과 … 이것을 立證하는 事實이다. 朝鮮에 잇서서도 일즉三國時代부터 이治水 利水事業을하여 왓던事實에 나타나는 바이어니와 三國時代에는 아직도 그時代에 … 되엿다. …

昨年事業設備資金

四億九千餘萬圓

比前年四千萬圓減、件數增加

資材關係로調整을强化한때문

【財務局發表】朝鮮에서의 昭和十四年中 臨時資金調整法의 施行狀況은 四月에施行된 法律改正에依한 適用範圍의 擴大에따라 取扱件數는增加되어 四百四十五件의 多數에이르고 이것을 前年即昭和十三年中 總件數二百三十八件에 比較하면 八割七分의 增加를되엿다 그리고 然認되지안흔것과 自發的으로 取下한것은 前年의八件에對하여 五十四件의多數에 이른것은 調整法 運用上의 强化結果로서 注目할바다

다음에許可 認可를한事業의 事業設備資金總額은 四億九千二百三十三萬圓으로 前年의 五億三千三百二十五萬五千圓에比하여 四千九十二萬二千圓의 減少를보이엇다 이것은여러가지 理由가잇슬것이나 主로資材關係其他로서 認可되지안흔까닭이라생각된다

朝鮮産苹果 上海輸出激增

朝鮮貿易協會調査에依하면 昭和十四年中 朝鮮産苹果의 對上海輸出高는

一、大邱産 六、九九〇箱
一、鎭南浦産九八、〇二一箱
一、仁川産 一二、一四五箱
一、釜山産 一、八七〇箱

合計 十一萬八千二十六箱으로 이것을 昭和十三年中의 輸出高五萬七千箱에 比하면 約二倍弱의 增加이다

調整法施行以來總額

十二億六千萬圓

工業이七億九千萬圓

資金調整法이 施行된 昭和十二年十月十五日以來二年餘동안에本法의 適用을受한 事業設備資金의 總額은十二億六千六百五十二萬六千圓이나된다 그工業別內容은工業이 七億九千八十五萬六千圓으로서 六割二分强을 占有 하고鑛業의二億一千六百五十六萬七千圓、交通業의 一億七千二百六十二萬圓이 그다음인바 그明細를示하면如左하다

▲臨時資金調整法第四條、第四條의二에基한申請事項取扱件數

申請事項別	昭和十四年自一月至十二月	自昭和十二年十月十五日至同十四年十二月卅一日
自己資金等에依한事業設備	二〇六	三七一
株金拂込	一一〇	一七三
資本增加	二九	四七
會社設立	七〇	一〇六
會社合併	四	一六
目的變更	一六	二八
條項變更	一〇	一五
計	四四五	七五六

▲金融機關의貸付、臨時資金調整法第四條、第四條의二에依한許可及承認各局의協議에同意한事業設備資金額(單位千圓)

業態別	昭和十四年自一月至十二月 金額	百分比
鑛業	[illegible]	二三・八
工業	[illegible]	[illegible]
農林業	[illegible]	[illegible]
水産業	[illegible]	[illegible]
交通業	[illegible]	[illegible]
商業	[illegible]	[illegible]
鑛業	[illegible]	[illegible]
其他事業及施設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一〇〇・〇

業態別	自昭和十二年十月十五日至十四年十二月卅一日 金額	百分比
鑛業	[illegible]	[illegible]
工業	[illegible]	[illegible]
農林業	[illegible]	[illegible]
水産業	[illegible]	[illegible]
交通業	[illegible]	[illegible]
商業	[illegible]	[illegible]
鑛業	[illegible]	[illegible]
其他事業及施設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一〇〇〇

上海航路 飛躍的充實

朝郵의釜山 上海航路는 現在慶安丸이 就航하고잇슬뿐인데現在川 青島航路의 平安 釜山의二隻을 四月부터 다시 上海까지 延長하기로되엇스므로 慶安을加하여 三隻이 月六往復을하기로되고 다시 四月부터 北朝鮮 上海間命令航路에도 就航하므로 朝鮮 上海航路는 飛躍的充實을 보게되엇다

朝郵三隻發注

朝鮮郵船에서는 社船二十六隻中 金剛山丸은 日本海汽船에 新義州丸은 朝汽에 各各引渡하기로되엇는데 이에代身할 新船으로左記三隻이 十五年度中에 竣成되어 其他船舶과 各航路에 配屬되게되엇다

▲盛昌丸(一、五〇〇噸) 天津航路(二月中旬竣成)
▲京城丸(四、〇〇〇噸) 朝鮮、裏日本(三月中)
▲平壤丸(四、〇〇〇噸) 八月竣成

〇米穀臨時總會 米穀에서는 二月十六日 臨時總會를열고 法改正에伴한 定款變更의議事

【同盟】日本銅統制組合에서는 三十一日에 二月渡銅價를 百키로에 百三十五圓으로 發表하엿는데 右는前回대로 据置한것이다

預金利下는지부지

反對論으로實現難

預金逃避를招來케될까憂慮

朝鮮內銀行의 預金利下는 一般的으로 當然히 行해질것으로 期待되엇섯스나 그必要論의 理由로서는

一、內鮮間의 利差가 너무크다는것
一、金融의大勢로서는 低金利를 一層徹底케할 必要가잇는것
一、國債 消化키爲한 利下가 必要한것

等이다 이에對하여 最近銀行間의 一部에는 預金利下 無用論乃至 時期尙早論이 有力이 提唱되는바 金融界의 모든情勢를綜合하면 預金利下는 當分實現될것갓지안코 形勢도 今後推移가 자못注目된다 아제그理由로 하는바를들으면 大體如左하다

一、定期預金利率은 相當이노프나 最近은當座預金과가튼 利率이 나지預金만 增加되는傾向이오 各銀行의 平均利廻는 實際的으로 低下되어잇스니 公債投資에는 큰支障이업는것
一、이以上의 利下는 預金의逃避를招來하고 政府의 貯蓄運動에 矛盾되는것

鮮銀券膨脹

日銀券도增設

一日이 鮮銀의 鮮銀券發行高는 四億二千三十二萬八千四百十九圓으로 또膨脹되어 前日에比하면 七十萬五千五十一圓의 增加이며 二千四百十九萬二千五百十二圓으로 六錢으로도 增加되엇다 日銀券도 膨脹되어 一日發行高를보면 三十二億七千七百七十萬二千圓으로 前日보다 二百萬三千圓이나 늘엇다

鮮銀券發行高週報

一、銀行券總發行平均高(自一月二十一日至一月二十七日) 四二六、二八三、〇四〇
內制限外發行高 一〇、九六九、七三四
正貨準備發行平均高 二五五、五四八、二五〇
保證準備發行平均高 一七〇、七三四、七九〇
二、週末銀行券發行高 四二九、〇四一、九〇三

生糸猛反撥

總買場面展開

【橫濱電話商通】前日休會中의外電爲替 人氣가恢復된때에 紐育定期絲가 九仙乃至 二十三仙二分之一에達하는 大爆進을示하고現物도 大殿行을傳한것과 東京式의反高를傳하여 人氣는 丟(?)高場되어 總買場面을展開하고 規則에依하여 寄付를全部受渡하고 大引만의 立會를한結果 各限一圓九十五錢乃至二圓七十八錢에達하는 猛反撥을演하고 期近은十入圓 長期도七圓高를 復活하여 新甫七月限은 六錢의遷下인 七百七十三圓三十九錢으로 發會하엿다

鉛、亞鉛賣價据置

【東京電話同盟】日本鉛、亞鉛、安티모니ー統制組合에서는三十一日에 二月分賣價를 如左히据置發表하엿다(百키로에)

鉛四十圓 燕鉛、亞鉛五十四圓 電氣亞鉛六十一圓 안티모니ー百三十五圓

銅、錫도据置

【東京電話】

古手帖에서 주운生 ⑨

나막신과銀行

지금은 洋服아닙고는 行世하기어려우나 約二十年前만하여도 아주흔하지사람이 아니고는 예洋服者를바기는어지안햇다 銀行만하더라도洋服쟁이 兼相對하지안코 지長行에 나막신신고 드러오는양반을 歡迎하엿다 그들이 事實上 實力이잇고 信用이잇는 장고지인때문이다 그들은 銀行의 빗을 쓰는때도 限度와金利以外는 다른要求가업섯다 까다롭지가않다 정말 商人이엇다 나막신 소리가 나면 行員들의 어엿움이나온다

滿洲栗取次販賣

그들의 商業經營은 흔들기가 적이업다 그때 滿洲栗을파는 巨商이잇섯는데 直輸入하는것이아니라 內地人商人을通해서 取次販賣를하엿다 그러니 비싸게사서 利조금보고 팔뿐이다 그러나 그取扱이大하하니 나만흐므로 이것이 利益보다은銀行을 움직이다 勸告를 하마디해보앗다 수연감님 왜 取次販賣만하시오 直輸入하면 利가만흘것을… 資金은 얼마든지대드리리다 다가다가하는바람에 〇아이여보 떡한소리 작작하오 直輸入하려면 相當한사람을派遣해야하지안소 우리는交際하는데 막걸리먹자이 면될것을 料理집食堂으로할 그 實用業出이 얼마이겟소

取次販賣보다도 利子속이업슬것아니오 억지로 智惠를빌리려던 銀行員 입을버리고 할말이업섯다

石橋를다리式經營

그들의商業經營方針은 資本과技術의 合作을하지안코 獨式으로 흔들하기만 爲主어엇다 學校나온사람을 相當지도안코 石橋를다리式으로 장사를해왓다 소씨를믿게恰當한사람보다 實속은그들이든든하엿고 그러해야만信用을일치아녓다 지금의巨商에比해서 대단한差異가잇슬것가든나 그 의眞實한수입수업는 商業道德은 問題삼이 行하는 近者에比해서 歉遜를 表치안흘수업다

時事秘話

一月中對外貿易

入超大激增

輸入三割六分增加

財務局調査＝一月中에잇서서朝鮮對外貿易은

輸出 一千六百八十二萬圓
輸入 三千六百九十六萬圓
合計 五千三百三十一萬圓
入超 二百三十一萬圓

으로 이것을 前年同月에比하면 輸出三百四十六萬圓(二割六分) 輸入五百二十七萬圓(三割六分) 合計八百八十三萬圓(三割一分)을 各其增加하고 그入超도 亦是前年同月의 二倍三分에達하엿다 卽如左하다

區別	本年	前年	增加	增加率
	千圓	千圓	千圓	%
輸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輸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入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月中朝鮮對外貿易額은 以上과가티 主로第三國向의 增加를보인때 다시 對前年同月의 增加額을 地域別로보면

▲滿洲國 九百七十九萬圓前年同月比六萬圓(六厘)減 ▲中華民國四百八十萬圓前年同月比三百十二萬圓(十八割六分)增 ▲關東州百七十四萬圓前年同月比一千六萬圓(一割八分)增 ▲國城計一千六萬圓前年同月比二百十三萬圓(二割六分)增 ▲第三國四十八萬圓前年同月比十三萬圓(三割七分)增

으로서 卽國城輸出에잇서서는輸出抑制强化를 反映하여 米、砂糖、麵油、石油「세멘트」及家屋建設材料等의 滿洲向이 더욱不況이 엇스나 米、紅蔘及小麥粉等의 對支輸出과 水産物、人絹織物、林檎、淸酒、魚介鹽乾、藥草、「가바이드」木材、木材及機械類等의 對滿關東州輸出은 依然好調를 持續하고 드디어對支輸出의 飛躍的出增을 보이엇다

第三國輸出에잇서서는 絹織物、魚粉、豆粕、石炭、鐵礦石、砂糖等의 輸出이 不況을 示하엿스나 魚粉의 激增하여 不況을 示하엿스나 對第三國輸出의 减退를 마지안엇다

다음으로 輸入에잇서서는

一、方輸入에잇서서는 ▲滿洲國 一千二百七十六萬圓 前年同月比 四百七十九萬圓(六割增 ▲中華民國 百十一萬圓 前年同月比 七十三萬圓(十八割六分)增 ▲關東州 五十四萬圓 前年同月比 二十七萬圓(三割三分)減 ▲國城計 一千四百四十二萬圓 前年同月比 五百二十三萬圓(五割七分)增 ▲第三國 五百七十一萬圓 前年同月比 十二萬圓(二割二分)增

으로 卽國城輸入에잇서서는 滿洲의 作稻不況으로서 粟、小麥及北支의 棉花는依然不況이엇스나 南鮮旱害地方補充食糧으로서 豆類는五百三十九萬圓을 激增하엿고 高粱及燕麥等이 顯著한 增加를보엿다 其他北支의石炭及大日本鹽의 增加를 보엿다 印度가 顯著하엿기 때문에 對滿、對支、支輸入은 顯著한 增加의 原因에 達하엿다

第三國輸入에잇서서는 鋼及鋼物類가 增進하엿스나 碑石、小麥、棉花及機械類等이 減少하고 機械類、羊毛、砂糖及滿洲의 「아멘」의工業原料品 及其他增加하엿기때문에 比較的增加를 보엿다 에서 三十三萬圓을 增進하엿다

이와가티 第三國에잇서서는 木材、機械印度의無煙炭及南阿聯邦의漁業用鯨油等이 顯著히增進하고 結局에잇서서는 敍上한바와가튼增進을보이엇다

또一月中의重要品의 輸出入 詳細內容은如左하다

一、輸出 가、對鮮、滿、支輸出重要品

品名	一月中輸出額(千圓)	前年同月比增減(△)(千圓)
水産品	[illegible]	[illegible]
米	[illegible]	[illegible]
人絹織物	[illegible]	[illegible]
豆	[illegible]	[illegible]
木材	[illegible]	[illegible]
煙草	[illegible]	[illegible]
紅蔘	[illegible]	[illegible]
小麥粉	[illegible]	[illegible]
가바이드	[illegible]	[illegible]
機械類	[illegible]	[illegible]
酒	[illegible]	[illegible]
機械類	[illegible]	[illegible]
鐵道車輛	[illegible]	[illegible]
石油	[illegible]	[illegible]
肥料	[illegible]	[illegible]
紙類	[illegible]	[illegible]
魚介鹽乾	[illegible]	[illegible]

나、第三國輸出重要品

品名	一月中輸出額(千圓)	前年同月比增減(△)(千圓)
魚粉	[illegible]	[illegible]
電球	[illegible]	[illegible]
紅蔘	[illegible]	[illegible]
綿布	[illegible]	[illegible]
琺瑯鐵器	[illegible]	[illegible]
陶磁器	[illegible]	[illegible]
綿布	[illegible]	[illegible]
鑄寸	[illegible]	[illegible]
人絹織物	[illegible]	[illegible]
魚介鹽乾	[illegible]	[illegible]
黑鉛	[illegible]	[illegible]
白蔘	[illegible]	[illegible]
酒	[illegible]	[illegible]
硝子飾玉	[illegible]	[illegible]
地金	[illegible]	[illegible]
水産物	[illegible]	[illegible]
木材	[illegible]	[illegible]
藥草	[illegible]	[illegible]
林檎	[illegible]	[illegible]
石炭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淸酒	[illegible]	[illegible]
세멘트	[illegible]	[illegible]
家屋建設材料	[illegible]	[illegible]

二、輸入 (가) 對鮮、滿、支輸入重要品

品名	一月中輸入額(千圓)	前年同月比增減(△)(千圓)
豆	[illegible]	[illegible]
栗	[illegible]	[illegible]
高粱	[illegible]	[illegible]
石炭	[illegible]	[illegible]
胡麻子	[illegible]	[illegible]
硫安	[illegible]	[illegible]
燕麥	[illegible]	[illegible]
豆粕	[illegible]	[illegible]
鹽	[illegible]	[illegible]
棉花	[illegible]	[illegible]

(나) 對第三國輸入重要品

品名	一月中輸入額(千圓)	前年同月比增減(△)(千圓)
棉花	[illegible]	[illegible]
鹽	[illegible]	[illegible]
木材	[illegible]	[illegible]
生護謨	[illegible]	[illegible]
小麥	[illegible]	[illegible]
石炭	[illegible]	[illegible]
阿仙藥	[illegible]	[illegible]
機械類	[illegible]	[illegible]
鐵鑛石	[illegible]	[illegible]

下旬貿易出超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一月下旬對外貿易概算은 如左하다(單位千圓)

輸出	二二五、五一五	
輸入	一一六、八八二	
合計	三四一、三九七	
出超	一〇八、六三三	
一月以降入超	四三、四七四	

大阪商品市況

【大阪電話商通】▲古綿(綿屑)是休省에서는 肥料代政에 對하여 商議가 終了되면 公定價格이 發表된다는 模樣이야 市況商品에 對해서는 確實치안흐므로 商地市況은 依然히 强硬하여 期近物은 十三圓六十錢으로도 漲騰되엇다 ▲小麥(氣迷) 內地小麥의公定價格은 一日農林、商工兩省으로부터 發表되엇는데 이에對하여 業界의 意見은 其他産産物과 比較하여 너무나 低位에 잇기때문에 地方에서 貿出할지가 疑問이다 그

株式 利喰物로 區區

前場反低 今朝는昨日後場의반동으로서 東新七低인百四十圓七、鐘紡三高인百六十八圓三、鐘新二低인 百五圓八、安取十九圓一에 寄付된後 利喰物로 强弱모양이다가 結局 東新百四十圓三、鐘紡百六十七圓五、鐘新

今日의市勢 一日

▼…市勢는 今日부터 再開、藏會는今日로써 再開、議相의財政演說이 注目된다

▼…近衛公의 말을빌것도업시 最大問題는 國內財政經濟

▼…언제나 經濟問題는 中心이되어잇섯스나 今日과가치 切迫한적은업섯는것

▼…「인훌레」이냐 「데플레」이냐가 論議되는바

▼…現下情勢로선 二者一을 擇할수업는데 困難이잇는것

▼…「인플레」에 데플레」의 的要素가 添加된것이 特徵

▼…한다한다하던 朝鮮의預金利下는 흐지부지되고 모양

▼…預金逃避를 理由로反對한다.

現物反戾

前場の 安定으로 現物도 一般으로前場反戾味이어서 還新、日立新、鐘實、帝人新、닉켈新、東新、旅行新等은 一、二圓高이엇고 紡株도 大阪鐵鋼、鄭新이 一二、三圓高로 强調를 무하엿다 一方朝鮮物도 大體에잇서서 鮮新이 二圓五錢인 四十九圓 東拓은 十二圓五錢인 四十九圓 五十二圓을 부르고 拂込價格하여 고잇섯다

棉花綿布好勢

綿花는 當限七十四圓五十錢 先限內地七十錢高로 三圓九十錢이엇고 綿布當限八十二圓六十錢이고 綿布先限은 百十五圓七十錢으로 好轉이엇다

綿花、綿布商은 今朝의外報에 利好材料를 豫期하여 寄付에 新高値로되어 高騰에 그러한 成行한다 特히 當業者는 買進에 力하고 있다

再開議會注視

再開議會는 今日부터 開會되는데 가이 全體업은 大藏大臣의 財政演說에 協力하는 態度를 取하고 기는하나 반드시 積極的 買進하기로 多少間의 波亂이잇을것을 豫期하여 야하겟다 그러므로 昨日買戾의 反動을 示하여 現狀으로는 今朝에 이르러 低落하여 活動狀態를 못하여 兩國의 買方의 活動을 보게되엿스나 原因은 不足이라는 主로 大勢의 不利가 못하고 日英 日米의 關係도 아직은 不利한 動向이야 有利하다 못하고 日英 米의 關係도 아직은 不利한 動向과 아울러 注意치안을수업스므로 東新에 對해서도 百四十圓을 넘을려는 傾向이 잇서 藥하지 안흘것이다

後場閑散

後場東新은 前場引値보다 安值인 百四十圓二、鐘新一高인 百五圓九로 시작하야 一般으로 閑散하다 東新의 大引은 大引 六十七圓六、鐘新一高 대연 東新七十九錢圓고 大新一十二圓八에 大引

今日現株市勢 (正午現在)

◇朝鮮內株式

鮮銀新	五〇・〇〇	朝鮮殖銀	五五・〇〇
殖銀新	四五・〇〇	京春鐵	五四・〇〇
朝鐵	六六・〇〇	同四新	一五・〇〇
京電新	五五・〇〇	同新	五八・〇〇
京城電氣	五五・〇〇	漢水電	五五・〇〇
南鮮電	七八・〇〇	西鮮電	五二・〇〇
國産自	三五・〇〇	中央無盡	二五・〇〇
無煙炭	二七・〇〇	製鍊	五二・〇〇
		小林新	五四・〇〇

延取 依然同調 前場閑散

今朝도 依然賣買不振이어서 玄米는 모두不成立이고 正租는 第一區三月限에잇서서 十二圓五十四錢에 一本을 付하엿다 後場不成 後場은 不成立으로 에場을 止하엿다

海外經濟 卅一日

紐育 米貨	[illegible]	
倫敦	[illegible]	

今日財界一日

◆米穀(京城、公定値段)(單位十石)

正租(京城) 三等 二〇、三四
玄米(京城大賣) 七分搗 二四〇
大豆 一三〇
栗 一三〇
大豆 二三〇

◆株(京城、公定値段)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鐘新	[illegible]
朝紡	[illegible]
鋼	[illegible]

京城物價一日

七分搗米(一石、單位圓) 白米 押麥 …

銀行券 卅一日

◆朝鮮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限外發行 [illegible]

◆日本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限外發行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翌日物	[illegible]
無條件	[illegible]
月越物	[illegible]
商業手形	[illegible]

◆大阪金利

翌日物	[illegible]
無條件	[illegible]
月越物	[illegible]
商業手形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枚數 金額
◆東京手形交換高 枚數 金額
◆大阪手形交換高 枚數 金額

東京國債

▲甲號五分ー 〇五七五 ▲一回四分一〇三六 ▲二回四分一〇三五〇 ▲二十三年物 九十九年物 一〇三〇〇 ▲二十八年物 九八九〇 ▲佛貨四分一 九九〇 ▲ 八三〇

鑛油粕・麥粉

◆阪神鑛油(十函) 三月 四月 五月
◆阪神綿油(百斤)
阪神 FOB 冲
또람鑵入 百斤
同 裸 價格
北海物 木箱入二罐
◆日本麥粉市勢(綠印一袋三十六斤)
下關 다이아
名古屋 雪印
阪神 三月 四月

對外爲替

東京 朝鮮 三月 四月
對米 百圓에 二三弗十六分七
對英 一圓에 一志二片二五分一
以上朝鮮銀行賣

株式

◆朝取定期(呼値一株當圓)
◆朝取短期(呼値一株當圓)
◆東京短期取組
◆東京長期
◆東京現株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朝新 大新 東新 新東 鐘新 紡新 滿業 安取 日産 [illegible]

棉花 綿布 生糸

大阪 (呼値百斤單位 / 呼値一反單位 / 呼値一斤單位) 二月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前場 寄付 前引 後場 後引 [illegible]

橫濱 生糸 現物D格

株式賣買

東亞證券

京城府黃金町 …

三國志 【86】

韓雲龍 譯

熊超 畫

董衛와呂布 一

손權이 장사를 나누어 각각 용맹한것을 지키고 한편으로 조조를 사귀고 한편으로 유비를 원조하여 헛된 흙덩어리를 …

내가 한계교가 잇으니 유비로 하야금 꼭 사로잡히게하리라
「무슨 계교요」
「유비는 군사를 소패에 둔것은 취하기가 쉬울지나 여포가 범처럼 서주에 웅거하고 전번에 공이 여포에게금 백과 양식과 말을 허락하고 주지아니하엿으니 그것을 주지아니하면 여포가 반드시 유비를 도울지라 이제 마땅히 사람으로 하여금 양식을 보내어 여포의 마음을 사서 하야금 군사를 움지기지 말게하면 먼저 유비를 가히 사로잡을지니 뒤에 여포를 도모하면 서주를 가히 어드리라」
원술이 기뻐하여 한윤(韓胤)으로 하여금 곡식 이십만석과 비밀한 편지를 가지고 여포에게 보내니 여포가 심히 기뻐하여 한윤이 두터히 대접하는지라한 윤이 도라와 원술에게 고하니 원술이 기령으로 대장을 삼고 뇌박 진란으로 부장을 삼아 군사 수만을 거느리고 소패로나 아갓다.
현덕이 그소식을듯고 여러사람을모아 상의할새 장비가 나아가 싸우고자 하거늘 손건이 말하되
「이제 소패에 양식이적고 군사도 얼마되지 아니하니 어찌 대적하리오 가히 여포에게 편지를보내어 급함을 고하게하소서」
장비가 말하되
「그놈이 어찌 질기어오리오」
현덕이 말하되
「손건의 말이 올타」하고 드듸어 군사를 이르켜 길을 떠낫다.

기령이 군사를이끌고 크게나 어가 패현 동남에 이르러 진영을 배풀고 낫에는 기치를벌리어 산천을 가리고 밤에는불을 밝키어 천지를 비치게 하는데 현덕은 다만 군사 오천여인이 잇슬뿐이라 마지못하야 고을에 나어가 진을치고 잇더니 홀연히 보하되 여포가 군사를 이끌고와서 고을에서 리쯤되는 서남쪽에 진영을 배풀엇다 하엿다.
기령이 여포가 군사를 거느리고와서 현덕을 구원하려함을 듯고 급히 사람으로 하야금 여포에게 편지를 보내어 신의없음을 책망하니 여포가 우스며 「내가 한계교가잇서 원술과 유비의 양편에서 모두 나를원망하지안케 하리라」하고 사자를 보내어 기령과 유비를 청하여 자기의 진영에 와서 잔치에 참례하라 하였다.
현덕이 여포의청을 바다 곳가려한데 관우와 장비가 말하되
「형님은가히 가지못할지니 여포가 반드시 다른마음이 잇스리라」
현덕이 말하되
「내가 저를 대접하기를 박하게 하지아니하엿스니 반드시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께올리 행하니 관장이 따라서 여포에게 이르매 여포가 말하되
「내가이제 특별히 공의 위험을 풀지니 다른날에 뜻을 얻거던 서로이저바리지마소서」

현덕이 칭사하고 자리를 정하매 …

「손책이 나의 군마를 빌리어서 일을이르켜 이제 강동을 다 어더매 은혜갑기는 생각지아니하고 도리어 옥새를 구하니 지실로 무례한지라 마땅히 무슨계교로 도모하리오」
양대장이 말하되
「손책이 장강(長江)의 험한곳에 웅거하야 군사가 정하고 양식이 만하니 가히 도모하지 못할지라 이제 마땅히 먼저 유비를처서 전일에 연고업시 서로친 한을 갑흘뒤에손책을 취하야도 늣지아니하니 … 」

「양대장의 말이올타」
…